【인하대 홍승용(洪承湧) 총장】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 배출 총력

"하이테크 기술을 산업체가 원하는 방향으로 교육하여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실용학풍입니다." 개교 48돌을 맞는 인하대의 홍승용총장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재양성을 우선으로 꼽는다. 홍총장은 특히 '특수한 학생을 특수하게 키운다'는 모토 아래 "우수한 특기생을 선발하여 해외 명문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전담 지도교수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대담 : 李光榮(과학문화진흥회 부회장/본지 편집위원)

■ 일시 : 10월 23일 오후 4시 ■ 장소 : 인하대학교 총장실

■ 인하대학교의 연혁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인하대학교는 우리나라 첫 이민인 하와이 동포들이 이주 50주년을 기념하여 조국에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기로 함으로써 1954년 창학하게 되었습니다.

사탕수수밭에서 질곡의 인생을 겪어온 그 분들이 조국 부강의 의지를 결집하고, 이승만박사가 운영하던 한인기독학원을 매각한 15만달러가 설립자금의 기초가 되었죠. 초대 대통령 이승만박사는 '인하대학 설립에 관하여'라는 특별담화문을 발표하여 거족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여 인하공과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설립의 배경이 순수한 민족정신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국의 땅에서 육영의 의지를 펼쳤던 한인기독학원의 숭고한 뜻과 반세기 앞선 세계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개교 48돌 … 10만 인력 배출

이박사는 하와이 동포들이 마지막으로 조국의 땅을 밟았던 이 곳 인천에 부지를 정하고 교명도 인천의 '仁'과 하와이의 '荷'를 따서 인하공과대학이라 명명하고 동양의 MIT를 지향하는 창학정신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 총장님의 인하대학교 기본 운영방침은 무엇인지요.

저는 평소 대학에서 터득한 지식이 사회와 기업에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이테크 기술을 교육하여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배출하는 것 같이 예비 지식근로자를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벤처가 강한 대학으로 정평이 나있는 우리 대학의 장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21세기 지식산업사회에서의 대학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대학도 대학이 소재한 지역사회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봅니다. 대학총장 또한 캠퍼스에 머물지 않는 최고경영자로서 지역사회, 국가 경영에 필요한 인재양성 등 막중한 책임과 역량을 발휘해 나가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

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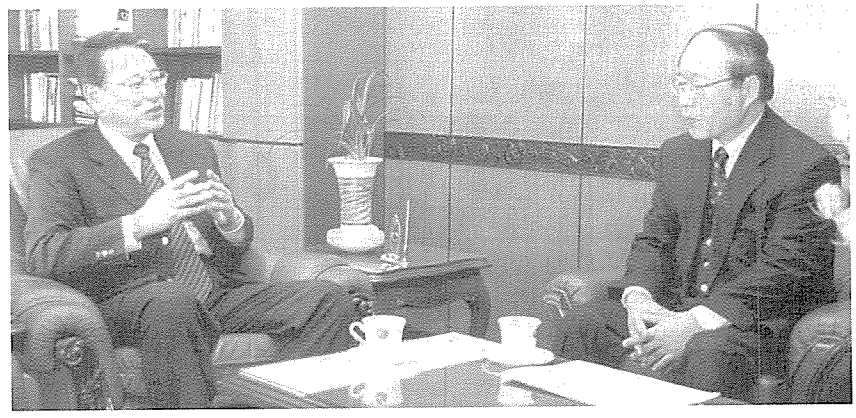
우선 동북아 중심대학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대학 제도, 커리큘럼, 전략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2010년까지 우리 대학이 동북아시아의 명문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발전전략은 다양한 분야를 검토하고 있으나 우수한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수한 학생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인재를 모으고 장학금 지원 비율을 대폭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할 특정 분야의 경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우수 교수연구요원 확보와 투자를 증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발전기금 확충 사업, 정부지원사업을 비롯해서 각종 재정 규모를 확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각별한 창학배경을 바탕으로 민족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국내 대학 7위권 진입을 지향하는 세계 속의 대학으로 정진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968년 한진그룹이 재단을 인수하여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고, 1972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였으며, 1996년 인하대 부속병원을 개원하였습니다. 개교 48주년을 맞은 인하대학교는 현재 9개 단과대학, 7개 대학원에 2만여명의 재학생을 보유하고 있으며, 10만여명의 중견인력을 사회에 배출했습니다.

■ 인하대학교가 타 대학과 구별되는 특성화 방안이 있다면.

인하대는 이미 1998년부터 동북아의 거점대학·연구중심대학·교육중심대학·지역사회 거점대학으로서 비교 우위와 미래 실용학문 분야의 특성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미래발전을 선도할 일부 비교우위 분야를 전략적으로 집중·육성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력을 발휘하고, 창조적 지식을 융합하고 발굴하는 실용학풍에 매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영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입니다.



현재 특성화 분야는 미래첨단기술부문의 정보통신·생명공학·항공우주·기계공학·재료공학·멀티미디어 분야가 있으며, 기초과학육성부문에 분자화학분야, 국제통상전문가 양성부문에 국제통상 분야와 지적재산권 분야가 있습니다.

개인지도교수제 도입

우리 인하대는 현재, 최우수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학클러스트로 육성하기 위한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초정밀생물분리기술연구센터 등 15개 대형 국책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이미 우수 인력과 연구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2년 7개 사업단의 20억원 규모에서 2005년 9개 사업단 3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특성화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중간 평가와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재정 자립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북아 비즈니스중심 전략과 연계하여 올해 하반기에 신규 특성화분야를 공모하여 2개 분야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 우수학생 유치를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먼저 우수학생의 개념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교과성적 우수자 뿐만이 아니라 특기와 개성,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합니다. 인하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수시모집을 적극 활용해 우수 어학특기자·성적우수자 추천자 선발 등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전액장학생인 정석장학생을 1백명 선으로, 일반장학생을 1천명 선까지 대폭 늘리는 등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수혜율을 대폭 높이고, 해외교류대학과의 교류협정을 통한 해외 유학 및 연수제도 등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고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대학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2학년 학생을 추천받아 기

숙사에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예비대학을 운영하고 우수한 학생에게 수시모집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학생을 특수하게 키운다'는 모토 아래 우수한 이공계 학생과 어학특기 학생을 선발해, 영국의 옥스퍼드·미국의 프린스턴대학 등에서 시행하는 개인전담 지도교수제(Tutor System)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시스템은 우수한 신입생 한명을 교수 한 분이 전담 지도하여 해외 유학을 비롯한 진학 및 취업까지 책임지게 하는 제도입니다. 동북아의 중심에 위치한 인하대의 특성을 살려 최첨단 공학·국제통상·물류·국제관계·어문학 분야에 진출시키겠습니다.

대학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대학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취업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하대는 매년 80% 이상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100% 취업을 위해 모든 재학생을 대상으로 입학부터 졸업 후까지 철저한 A/S를 할 계획이며, 진로취업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온라인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된 취업정보를 갖추고 입학부터 학생들에게 규격화된 전자이력서를 작성하게 하고 취업·진학·국가고시·자격 취득 등 진로별 트랙을 설정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매년 취업률 80% 기록

현재 인하대가 주최하여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고교생 경시대회가 4개 있습니다. '백일장' '수학올림피아드' '과학올림피아드' '외국어경시대회' 등으로 여기서 입상하면 수시모집의 특기자 지원자격이 부여됩니다. 실력이 우수한 응시생이 많아서 학교에서 더욱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 분야와 정보통신 등의 특성화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도 우수 신입생이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서울·경기지방의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에서 인하대까지 68편의 통학버스를 배차해 5분 내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학생을 위해 2001년 1천 10명 수용규모의 첨단시설을 구비한 기숙사를 건립했고, 국제교류의 확대에 부응한 게스트하우스 기능이 포함된 제2기숙사를 곧 건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정보화가 곧 세계화라고 합니다. 인하대는 정보화를 대학발전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전자통신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사람·상품·자본이 국경을 초월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과 기술 또는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s)을 누구보다 먼저 습득하는 일은 개인은 물론 한 나라의 생존과 번영에도 필수적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인터넷의 속도를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정보의 바다'라고 하는 인터넷상에서는 천문학적인 정보와 지식이 떠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을 활용해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를 획득하거나 거기서 얻은 지식과 정보를 창의적으로 조립 또는 가공해 판매하는 일은 개인과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입니다. 전자캠퍼스(e-campus)의 도입과 확대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돼야 합니다. 우리 대학교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전자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국내외 대학과의 제도·교수·학생의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체제를 구비할 것입니다. 또 교수법과 학습법을 디지털화하고 웹 중심의 인프라를 구축해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이버대학을 더욱 확대·활성화할 것입니다.

■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2월 3일 국제박람회 총회에서 201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가 결정됩니다. 현재 여수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수에서 세계박람회가 열린다면 개최기간 동안 관람객 3천만명에 생산유발효과가 17조원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박람회는 이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박람회 개최국에 국가적 브랜드가치 제고와 국민통합,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과학기술, 정치·사회·문화 등 각 방면에서 개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는 올림픽·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국제행사입니다. 현재까지 3대 국제행사를 개최한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일본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이제 2010년 세계박람회를 여수에 유치함으로써 세계의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선진 국가로서의 위상을 파급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계를 포함한 전 분야가 외교적 역량을 총체적으로 펼쳐야 할 것입니다. ST